석주명의 '제주도총서'의 의의

윤용택(제주대)

1. 들어가는 말

석주명은 1908년 10월 17일(음력 9월 23일) 평양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6일(음력 8월 25일) 서울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일제강점, 해방정국, 한국전쟁 등 민족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42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나라 나비와 제주도(濟州島) 연구에 몰입하였고, 국제어인 에스페란토 보급에 힘썼다.

그는 평양에서 서당과 보통학교를 마치고 숭실학교에 다니다가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여 1926년 졸업하였다. 그는 1929년 일본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 농학과(농예생물전수)를 졸업함으로서 배움의 길을 마쳤다. 그는 가고시마고농에서 나비연구의 기초가 된 곤충학과 국제어인 에스페란토를 배웠고, 그것은 훗날 그가 나비연구자와 에스페란토운동가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귀국 후에 함흥 영생고보 박물교사로 근무하다 1931년 모교인 송도고보에 전근하여 11년 동안 박물교사로 부임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나비박사가 되었다.

그는 개성을 중심으로 나비채집을 시작하여 1933년 백두산, 1934년 함경북도와 간도 용정지방, 1935년 금강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1936년 전라남도 해안과 제주도, 1937년 경상남도, 1938년 묘향산, 평안남북도, 사할린, 북해도, 1939년 북경, 만주, 몽골, 1940년대 함경남북도, 만주, 1941년 압록강유역과 평안북도 등에서 나비채집을 하였고, 1942년 송도중학교 사직한 후 개마고원,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등에서 나비채집을 마무리하였다. 그는 나비채집을 위해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는 동안 지역이 달라지면 식생이 달라지고, 나비분포가 달라지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석주명은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가 한반도와 같은 점도 있지만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제주도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가 제주도 연구에 몰두했던 이유는 한반도와 다른 제주도의 자연은 우리 민족의 터전을 확장해주고, 우리 문화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의 문화는 우리문화의 뿌리를 찾고, 궁극적으로 우리문화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제주도 연구는 국학 연구의 연장이었다.

그는 적어도 제주도를 세 차례 방문하거나 체류했다. 첫 번째는 1936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주도의 나비를 채집하기 위해 1개월 남짓 체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산접류채집기」와 「제주도의 회상」에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1943년 4월 24일부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미생물학교실 소속인 개성의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이 개장하면서 부임하여 1945년 5월 개성으로 복귀할 때까지 2년 남짓 근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1948년 2월경에 제주도를 찾아 일주하였다.

그는 1936년 여름 한 달 제주도에서 나비채집하면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하여 1943년 4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미생물학교실 소속의 개성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으로 전근하게 된다. 자연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에서 사계절을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누구도 가기를 꺼리는 벽지 근무를 자원했던 것이다. 그는 제주도에 장기간 체류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전문분야인 나비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사회 분야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폭을 넓혔다. 그는 제주도에 부임하자마자 육지와 너무나 판이한 여러 가지 현상에 흥미를 느끼고 나비와 더불어 '제주도'를 그의 연구 테마로 삼았다. 그는 제주도에 애초에는 1년 머물 계획이었으나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1945년 5월까지 머물면서 곤충채집부터 방언, 인구, 제주도 관련 문헌과 자료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읽은 것 중에 제주도에 관한 것이 나오면 즉시 적당한 제목을 붙여 카드에 기록해 쌓아두었다.

곤충에서 시작된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언어, 역사, 문화, 사회문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간다. 그의 제주학 연구 성과의 대부분은 제주도총서 속에 결집되어 있다. 그의 학문 전체를 놓고 볼 때, 제주도 연구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르다. 그가 1943년 4월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 에스페란토 관련 글들을 빼고는 그의 연구 대부분은 나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머물게 되면서 그의 학문적 연구는 인문사회분야까지 확장된다.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는 한낱 나비 연구가이자 곤충학자에 불과했던 그는 제주학 연구를 거치면서 단순한 곤충학자가 아니라 자연, 인문,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통합학자기 되었다.

그는 제주도와 관련해서 6권의 제주도총서와 27편의 논문, 보고서, 기고문 등을 남겼다. 여기서는 그의 제주도총서를 간략하게 분석하면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2. 석주명의 제주도총서

석주명은 세상이 제주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는 제주도의 가치를 깨닫고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세상에 알렸다. 그가 해방 직전 2년여 동안 제주도에 체류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시기는 제주4.3 이전이어서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서 제주적인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석주명으로서는 학문적으로 최고 절정기였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최적기였다. 그리고 제주도를 떠난 직후에는 개성에서, 해방 이후에는 서울에서 제주도 관련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전념하였다.

그는 해방 직전인 1945년 5월에 제주도를 떠나고, 그 후 2년 동안 제주도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주도총서를 기획하고 발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서울에서 발행하는 <자유신문>, <중앙신문>, <조선인민보>, <매일신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대동신문>, <동아일보>, <조선의약신보>, <독립신보>, <현대일보> 등 십여 종의 신문에 등장하는 제주도 관련 기사들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의 '해방 이후 4년 동안의 신문기사로 본 제주도'는 당시 미국이 제주를 보는 시각, 제주가 전남에서 분리되어 도로 승격되는 과정, 콜레라 창궐로 390여명 사망, 당시 미국이 제주도를 보는 입장, 제주4.3의 계기가 된 1947년 3.1절 시위사건에 대한 각 중앙신문들의 견해, 태도, 제주4.3을 보는 미군정의 견해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석주명은 제주도시험장 근무를 마치고 1945년 5월 개성의 본소로 귀임한 직후 제주도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5년 6월경 수원 '농사시험장'의 병리곤충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1946년 9월 서울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연구부장을 맡으면서 제주도의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제주도총서로 정리해낼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는 1948년 2월 <제주신보>에 기고한 '조선의 자태'(1948. 2. 6)에서 제주다움과 제주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루바삐 한국의 지식인들이 금싸라기 같은 제주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를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연과학도였던 그가 인

문사회학적 연구를 직접 수행하여 마침내 제주도총서를 남김으로써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의 제주도총서 발간 계획은 그의 생전인 1950년 6월에 탈고한『제주도자료집』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저자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月까지 만 2개년여 제주도에 살면서 수집한 제주도에 관한 자료는, 8·15해방 직후 총서로 하여 6권의 책으로 출간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신문사출판국의 호의로, 2개월에 1권씩 모두 1년 동안에 필(畢)하려 한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지연되었는데, 지연된 그만큼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제주도총서의 발간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1집 제주도방언집(1947), 제2집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1949), 제3집 제주도문헌집(1949), 제4집 제주도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교료[校了]), 제5집 제주도곤충상(채자료[採字了]), 제6집 제주도자료집(탈고[脫稿])으로, 이 제6집에는 제1-5집에 들지 않은 여러 자료를 모은 것이다. 이 자료란 것이 저자가 주로 잡지에 기고한 기간·미간의 졸편들로서 그 중에는 기고했던 것을 다시 찾아온 것도 약간 있다. 이 제6집이 제주도총서의 종권(終卷)이므로 친지의 권고도 있고, 또 연구하는 분의 편의를 고려하여 권말에 졸저목록을 부록으로 넣기로 하였다.

하지만 제주도총서는 그의 생전에『제주도방언집(1947)』,『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 인구론(1949)』,『제주도문헌집(1949)』등 3권만 출간되었다. 나머지『제주도수필(1968)』,『제주도곤충상(1970)』,『제주도자료집(1971)』은 이미 집필이 끝나거나, 활자가 뽑히고 교정이 완료되었지만, 그가 한국전쟁으로 졸지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완간되지 못하고 유고로 남았다가 여동생 석주선의 노력으로 1971년에야 완간되었다

3. 제주도총서의 요지

1)『제주도방언집』

이 책은 제주도총서 제1집으로 1947년 12월 30일 서울신문사에서 초판(46판, 188쪽) 발행되었다. 석주명은 지역어인 제주방언을 수집 연구하여 세상에 알림으로써 방언연구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가 제주방언을 수집하고 연구한 것은 국제어인 에스페란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려 했던 것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 하지만 그가 1947년에『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 부(附) 소사전』과『제주도방언집』을 펴낸 것은 그가 세계주의자인 동시에 지역주의자였고, 더 나아가 지역과 세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든 세방주의자(glocalist)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그가 제주방언을 조사하고 수집하게 된 동기는 '국학과 생물학'에 잘 나타나 있다.

>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에 언어가 9백이상이나 있다고 한다. 그각 민족어는 다시 지방에 따라 여러 지방언어 즉 방언으로 나누이고 또 한 지방의 방언이란 것도 자세히 조사해보면 개인차에 의한 개인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여 언어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제거하여 귀납하면 방언이 성립하는 것이고, 제 방언간의 차이점을 조절하면 민족어가 되는 것이고, 제 민족어간의 공통점들을 계통세우면 언어분화의 계통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 (중략) 곤충들은 대륙에 따라 그 곤충상이 다

> 르고 같은 대륙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지역별의 곤충상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같은 지역에 있어서도 소지역인 지방에 따라서 각 지방 곤충상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해서 생각하여 각 지방의 곤충상간의 차이를 조절하면 지구상의 전 육지를 먼저 몇 개의 큰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 지역을 다시 소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조선전토를 도군면동(道郡面洞)의 순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과 같다. (중략) 이만하면 방언과 곤충 간에는 일맥상통하는 점점이 많아서 방언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곤충을 연구할 수도 있겠고 또 곤충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방언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략)그러나 제주도에 온 이상 이런 기회에 곤충을 채집하는 한편 방언의 단어라도 많이 모아서 조선어학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의의(有意義)한 일임을 느껴서 단어수집에 상당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 만 이 년 간에 수집한 단어는 7000이 되어서 일단락을 지었고, 그 때는 해방되는 해라 차차 시국이 달라져감을 깨닫고 5월에는 그만 귀경하였다. 수집된 단어의 수는 상당히 많으니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정리하면 유의의한 것이 틀림이 없는 일이다. ….(1948d)

『제주도방언집』은 제1편 제주도방언집, 제2편 고찰, 제3편 수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제1편 제주도방언집은 사전이라기보다는 제주어 어휘집이자 제주어연구서이다. 그리고 이 책은 곤충학자 석주명을 인문학자의 반열로 끌어올리고 있다. 석주명은 『제주도방언집』의 내력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만 2년여를 필자는 제주도에서 생활할 기회를 가졌다. 경성제국대학부속생약연구소제주도시험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전문하는 학문 외에 틈틈이 수집한 제주도 자료의 하나가 이것이고, 일본제국주의시대의 말기의 일이라 물론 노골적으로는 못하였으나, 소위 대학의 관리라고 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몸이었든 관계로 능률을 내었다. 1945년 5월에 개성에 있는 본소로 전근할 때도 다행히 아모 손실이 없이 와서, 내면적으로 틈틈이 정리하다가 8월 15일 우리민족이 해방되자, 먼저 우리말을 찾고서는, 곧 이것을 표면에 내놓고 정리에 분망하였다. 그리고 1947년 6월에 들어와서야 탈고하게 되었으니 이 일은 전후 5개년에 긍(亘)한 것이다.
>
> 이것을 완성하기에는 표준어를 비롯하여 지방어를 교시하여주신 여러 동무들의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책임을 분명케 하기 위하야 그 곳마다 그 동무들의 존명을 기록하야 경의를 표하였다. 이제 여기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
> 여기서 본서의 내용에 대하여 조금 기록하고 싶다. 제1편 방언집의 내용인 어휘는 좀더 장기간을 허(許)하였다면 좀더 수집할 수가 있겠고, 이 제1편을 기초로 한 제2편 고찰은 어학자라면 좀 더 발전시켰을 것이다. 전문외(專門外)인 필자라도 공통방언을 %로 계산해 보고도 싶었으나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밀기로 하고 필자는 그 경향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였다.
>
> 1947. 6. 25, 서울에서 지은이 씀

석주명은 제주방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용비어천가』(1445), 『두시언해』(1481), 『훈몽자회』(1527), 『송강가사』(1747) 등의 우리의 고전들, 오쿠라(小倉進平)의 『조선어방언연구』(1944) 등의 일본학자들의 연구성과, 방종현, 이숭녕, 최현배 등 우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88

권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어 연구의 대가인 오쿠라가 제주방언을 간접 연구하는 데 그쳤다면, 석주명은 제주도 현지에서 직접 어휘를 수집하고 연구하였다는 데 그 가치가 크다.

그는 제주방언을 그에 해당하는 표준어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가시(도토리), 가시아방(장인), 가시어멍(장모), 간세다리 (게으름장이), 곤밥(흰밥), 곱다(숨다), 니염(잇몸), 니껍(미끼), 대비(양발),말치(큰솟), 물패기(살모사), 부구리(진드기), 부름시 (심부름), 사오기(벚나무), 야게기(목), 작지(자갈), 주멩기(주머니),찰리(자루) 등이다. 그는 제주어 7000여 어휘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그것들을 분석하여, 육지의 다른 지방의 방언과의 공통점을 찾고, 일부는 조선고어에서 그 유래를 찾기도 한다. 그는 제주어 가운데 340여개가 우리의 고어(古語)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히고, 제주어에 많은 고어와 ‘ · ’음이 남아있어서 제주어는 우리말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가장 가치 있는 자료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곤충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지방 곤충상 상호간의 유연관계(類緣關係,)를 숫자적으로 연구하는 것처럼 각 어휘 중에서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 등의 방언들과의 공통점을 뽑았다. 즉 나비분류학에 쓰이는 연구방법을 방언연구에 응용한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제주어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방언분자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제주어 7000여 어휘 가운데 전라도와 경상도 방언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각각 340개와 338개로 그가 조사했던 제주어 전체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방언이 그만큼 특이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방언들 간의 공통어를 찾는 과정에서 각 지방에서의 방언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각 지방의 방언사전이 있으면, 제주어와 여러 방언들 간의 공통점을 찾는 데 좀더 수월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강영봉은 석주명이 ‘제주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제주어를 남부어와 북부어로 구분하였으며, 제주어와 외국어를 비교한 것은 방언에 대한 그의 공로라고 본다. 석주명은 제주방언을 연구하면서 외국어(중국, 몽골, 만주, 일본)에서 유래한 어휘가 어떤 것이지를 탐색하고, 더 나아가 말레이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과의 관계도 따지고 있다. 하지만 한낱 나비전문가였던 그가 제주방언 연구에 뛰어듦으로서 그 분야 전문가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참신성과 과감성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아마추어로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공통조어(祖語)에서 분기되어 나온 경우에만 비교가능하다는 언어학의 기본 원칙를 무시하고 제주어 어휘를 지나어(중국어), 일본어, 마래어(말레이어), 비도어(필리핀어), 안남어(베트남어) 등 외래어 어휘와 비교하거나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대응 없이 단지 발음이나 뜻이 비슷하면 그 언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강영봉, 2012) 하지만 그러한 오류들이 그가 제주어 연구에 기여한 바를 넘어서지 못하며, 그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은 후학들의 몫이다.

2)『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 인구론』

이 책은 부제가 보여주듯이 제주도의 인구론으로 1949년 11월 서울신문사에서 초판(46판, 190쪽) 발행되었다. 그는 1944년 2월부터 해방 직전인 1945년 4월까지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그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완성된 책으로 나온 것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였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인 제주4·3을 겪게 되고, 1948년 11월부터 이뤄진 중산간마을 초토화작전은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였다. 강경 진압작전으로 제주도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석주명은 이 책은 서문에서 출판과 동시에 고전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연구에 착수한 것은 1944년 2월이니 지금으로부터 꼭 만 5년 전이였다. 이 5년이란 세월은 지구 위에서 일어난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동을 포함하여서 그 영향은 우리 제주도에도 미쳤다는 것보다 제주도에야말로 예기치 못하였던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도 그 안정성을 찾기에는 까마득하다. 지금의 제주도의 형편은 해안 일주도로 이상부(以上部)의 인가가 모두 폐허로 되었다니 이 책에서 다뤄진 토평리, 교래리, 송당리, 성읍리, 오라리, 명월리, 의귀리, 토산리의 반쪽 제1구, 저지리 등 8.5부락의 기록은 벌써 역사적 기록으로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거기 따라 해안부락의 인구동태도 격변했으니 이 책은 출판과 동시에 고전으로 되어서 더욱 의의가 있다.

이 원고는 과거에 일문(日文)으로 조판까지 끝냈던 것을 우리말로 다시 고쳤기 때문에 일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잇을 것을 자인하는 동시에 대방(大方)의 관용을 구하는 바이다.

- 1949. 2. 19 서울에서-

그는 제주도 인구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제주도 전체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마을을 선정하였다. 즉 인구이동이 심하지 않고 외래풍이 많이 수입되지 않은 마을 가운데 산남과 산북, 동부와 서부, 해안과 내륙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9개면 16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그는 제주도가 잡혼, 재혼, 중혼 등이 많아서 자녀를 출산한 상황을 여자로부터 자세하게 듣는다는 게 어렵다는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보다 진실에 가까운 인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父) 또는 부(父)였던 사람에게 조사표 1매씩을 배당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자녀 전부를 수록하였다.『제주도의 생명조사서』는 제주도의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을 골고루 추출한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시의 제주도 인구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는 나비를 측정하고 통계내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나비분류학의 방법을 제주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조사에서도 응용하였다. 그는 수십만의 나비를 하나하나 측정하고 통계내어 분류했던 것처럼, 제주도의 마을별, 나이별, 성별, 생사(生死)별, 거주지별 등의 인원수를 일일이 조사하여 통계내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특징과 그것의 자연 및 사회 환경 등의 원인을 추리함으로써 당시 제주사회의 실태를 규명하였다. 그는 인구조사에서 남녀별, 연령별, 마을별, 생사별, 현지 거주자와 타지 출가자 등에 따른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제주사회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들을 추론하고 있다.

우리는『제주도의 생명조사서』를 통해 일제강점기 말기의 제주사회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16개 마을 호수(4,689)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남자 수(4,851)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걸로 보아 제주도에서는 남자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두게 되면 대부분 세대를 분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에서는 결혼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은 철저하게 분가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둘째, 여다(女多)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도 인구의 연령대별 성별 인구변동의 추이를 보면, 16개 마을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산아(産兒)의 성비는 52:48로 남자가 많으나 출가자를 포함한 마을주민의 성비는 48:52로 역전되어 여자가 많았다. 그리고 출산된 자녀의 70퍼센트가 주민(출가자 포함)을 구성하고 30퍼센트는 사망하는데, 사망비율은 16:14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이는 제주도에 여자가 많은 가장 큰 원인은 남자가 많이 죽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일제강점기 말기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남녀의 비율은 4대6 정도로 여자가 월등히 많아서 남자의 1.5배나 되었다. 석주명은 이처럼 여자가 월등히 많아지는 것은 출가(出稼)

가 주원인이고, 출가자가 그처럼 많은 것은 자연이 그만큼 척박한 때문이고, 제주도 여자가 노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자연이 척박하고 남자가 출어(出漁)를 하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넷째, 결혼한 한 남성은 평균적으로 6.2명의 자녀를 낳고, 그 가운데 30퍼센트가 사망하여 가구당 5.4인 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는 당시에 유아기에는 소화기병과 호흡기병, 청년기에는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바람 많고, 식수가 부족하고, 온난한 기후 등 제주의 자연환경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고, 15세 이하의 유년기까지는 남자가 많다. 하지만 남자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남녀 성비가 역전되고, 16세 이후가 되면 남자들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고 되어 여자활동인구가 많아져서 여다(女多)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석주명은 다른 곳에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자료 등을 인용하면서 에전부터 제주도는 여다(女多)의 섬이었지만, 제주4·3으로 성인 남자들이 많이 희생됨으로써 여자가 많은 섬으로 더욱더 굳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는 제주4·3 이전에 16개 마을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크며, 제주4·3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조사대상이었던 16개 마을의 4.3 희생자수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평균 세 집에 한 명 이상 희생되었고, 중산간마을에서는 평균 두 집에 한 명 꼴로 희생되었으며, 특히 토산리, 의귀리, 교래리 등에서는 온 가족이 몰살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제주4.3으로 제주도민이 많이 희생된 이후인 1949년 5월 실시한 대한민국 제1회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주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20% 이상 더 많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천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40% 더 많고, 구좌면은 35% 더 많은데, 이 두 곳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상적으로 격렬한 곳으로 제주4.3을 겪으면서 남자들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3) 『제주도문헌집』

이 책은 석주명의 제주도총서 제3권에 해당하며, 1949년 11월 1일 서울신문사에서 초판(46판, 252쪽) 발행되었다. 이 책의 제목은 겉표지와 책자를 소개하는 판권지에는 『濟州島文獻集』으로, 속표지와 『제주도자료집』의 업적 목록에는 『濟州島關係文獻集(A List of the Literatures concerning on Is. Quelpart)』으로 되어 있어서, 책 제목을 말할 때 데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책의 겉표지와 판권지에 실린 제목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제주도문헌집』을 택하기로 한다.

『제주도문헌집』은 위에서 보듯이 저자명순, 내용순, 주요문헌 연대순, 서평, 총괄 등 총 5장으로 이뤄져 있다. 석주명은 총괄 편에서 "본서에는 여태까지 저자가 읽은 논저들을 서지학적으로 배열하야 제주도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진 학도들에게 참고로 드릴려고 한다."고 하고 있다. 그는 제주도 연구에 필요한 문헌들을 1,074매 카드로 정리하여, 1,074종의 문헌을 수록하였고, 책의 편집이 끝난 후에 발간된 22종의 문헌을 추가함으로써 총 1,096종의 문헌목록을 수록하였다.

『제주도문헌집』의 '저자명순'에서는 우리나라 저자들은 가나다 순으로, 일본인 저자들은 アイウ 순으로, 서양인 저자들은 abc 순으로 문헌들을 정리하고 있어서 저자의 이름만 알면 쉽게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순'은 다시 총론부, 자연부, 인문부로 나뉘는데, 총론부는 제주도와 관련해서 총론적인 성격의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다. 자연부는 다시, 기상, 해양, 지질광물, 식물, 동물, 곤충 등 제주도의 자연을 6개 분야 총 433편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곤충 부분을 따로 분류한 것은 석주명 자

신이 곤충학자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자연과학 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부에서는 다시, 언어, 역사, 민속, 지리, 농업, 기타산업, 정치·행정, 사회, 위생, 교육·종교 등 총 11개 분야 총 599편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석주명이 제주도의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문헌연대기순', '서평', '총괄' 등의 부분은 『제주도문헌집』이 단순한 문헌목록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석주명은 주요문헌 연대기순에서 제주도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주도 관계 단행본(◎) 26권, 제주도 관계 논문(○) 121편, 제주도를 논급(論及)한 단행본(⊗) 10권, 제주도를 논급한 논문(×) 26편을 등 183편만을 추출하여, 각각 ◎, ○, ⊗, × 등으로 표기하여 놓음으로써 제주학 연구자들이 관련문헌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서평'에서는 제주도 관계문헌 가운데 27권의 문헌들에 대해 간단하게 평하고 있다. 이를테면 고정종의 『제주도요람, 1930』의 경우 "내용이 비교적으로 충실하여 훌륭한 책이다."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탐라지보유, 1932, 1934, 1936』의 경우 "2편을 합친 책인데 중판하면서 추보(追補)하였다. 7000부나 소화되었다고 하나 그 내용으로 보아 추천할 수 없는 책이다." 스기야먀(杉山行一)의 『제주도요람, 1942』의 경우 "저자 자신이 경영하는 관광안내소의 선정용으로 인쇄한 것이지만 잠시 오는 관광자에게는 편리한 팜플렛이다." 등으로 한두 줄로 간략하게 해제해 놓고 있다.

그는 '총괄'에서 제주도에 관한 주요 논저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66편의 논저를 발표한 나카이(中井猛之進)는 '조선식물'을 테마로 한 세계적 식물 분류학자로 조선문화에 공헌이 가장 큰 사람의 하나이다.
>
> 47편의 석주명은 '조선산접(朝鮮産蝶)'을 전공하나 '제주도'가 그의 연구테마의 또 하나이다.
>
> 43편의 젠쇼(善生永助)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구 조선총독부의 어용학자였다.
>
> 31편의 모리(森爲三)은 '조선의 동식물'을 조사한 공로자의 한 사람으로 그 업적에 조루성(粗漏性)은 있으나 전형적인 고등학교 정도의 교수로 일본국가의 난숙성(爛熟性)을 표시하는 인물이었다.
>
> 30편의 오쿠라(小倉進平)은 '조선방언'을 테마로 한 세계적 언어학자로 조선문화에 공헌한 바 가장 큰 사람이라 할 수 있다. …(1949b)

그는 그들의 논저 편수만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제주도 연구에 공헌한 정도를 다시 질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자들에 대한 평가는 그 당시 시대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당대의 학자들을 바라보는 석주명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제주도 연구, 즉 제주학의 독보적 존재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는 제주도의 가치를 알고, 제주도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깨닫고 '제주도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제주도문헌집』에서 자신을 분명히 제주도학 연구자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석주명이 단순히 필드의 수집가가 아니라 제주도와 관련해서 양과 질에서 풍성하면서도 다양한 연구를 했으며, 단순한 곤충학자를 넘어선 통합학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문헌집』 말미에 그동안 빠뜨린 문헌 일부와 출판 직전에 나온 최신의 논저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볼 때, 그의 지적 성실성과 치열성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제주도문헌집』은 앞으로 제주학 관련 논저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수 참고서가 될 것이다.

4)『제주도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이 책은 1949년 5월에 탈고하여 1950년 6월에 이미 교정 완료된 상태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석주명 생전에 나오지 못하다가 여동생인 석주선 교수가 오빠의 회갑을 기념하여 1968년 11월 보진재에서 발간된 유고집(46판, 222쪽)이다. 이 책은 제목과는 달리 일반 수필집이라기보다는 작은 제주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며, 서문(序), '오돌똑(오돌또기)' 악보, 총론, 자연, 인문 등으로 나뉘고 있다.

'총론'에서는 제주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한반도(육지부)에는 있지만 제주섬에는 없는 당시 풍경으로 까치(필자주: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해조가 될 만큼 많이 번성하고 있다)와 포플러를 들고, 제주섬에만 있는 문화로 파종한 후에 말을 이용하여 밭 밟는 것과 해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다르기는 해도 동식물의 성립분자를 놓고 볼 때 일본보다 한반도의 분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중요 분자의 대부분이 한반도와 공통되어 생물학상으로 한국의 부속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옛 자료와 일본학자들의 연구자료들을 통해 제주도의 (특)산물들을 보여주면서, 300여개의 오름, 비자림, 김녕굴, 제주도특산 동식물 등은 세계제일이고, 감귤원, 돌, 비바람, 여자, 소, 말, 고사리, 까마귀, 진드기, 자생아열대식물, 해녀, 장수자 등은 한국제일이라 보고 있다.

석주명은 제주도의 삼다(三多)와 삼무(三無)에 대해서 얘기한다. 세간에서는 제주도에 돌, 바람, 여자가 많아서 삼다라 하지만, 그는 돌, 바람, 비가 많아서 삼다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돌, 바람, 비 이외에 말[馬] 또는 여자가 많아서 사다(四多), 거기에 까마귀, 진드기, 고사리를 추가해서 팔다(八多)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제주도의 삼무(三無), 즉 대문, 거지, 도둑이 없지만, 육지식 대문이 없을 뿐,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 즉 '올래'가 있고 좌우에 석판(石板) 혹은 목판(木板)을 세우고 '정목'이라는 막대를 삽입하는 제주식 대문인 '쌀문', '살채기' 혹은 '이문'이 있다고 한다.

'자연'에서는 제주도의 기상, 해양, 지질·광물, 식물, 동물, 곤충 등의 분야를 각각 사전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석주명은 여기서 제주자연의 전 분야에 걸쳐 자신이 보고, 듣고, 읽고, 직접 연구한 것들을 각각의 분야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즉 제주도 자연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그의 관점에서 중요하거나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제주의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들의 문헌들을 꼼꼼히 서로 비교해가면서 읽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연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에서는 제주의 전설·종족, 방언, 역사, 외국인과의 관계, 관계인물, 민속, 의식주, 일상생활, 지리, 도읍·촌락, 산악, 도서, 지도, 교통·통신, 농업, 임업, 축산, 수산, 기타산업, 정치·행정, 사회, 인구·특수부락, 위생, 교육·종교, 문화 등으로 나뉜다. 이 책 전체를 놓고 볼 때 '자연' 분량에 비해, '인문'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자연' 분야에서는 선행연구자들, 특히 일본학자들의 성과를 많이 인용하였으나, '인문' 분야에서는 주로 석주명 자신이 직접 원자료를 읽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점에서 그는 제주도와 관련해서는 인문사회학자라 할 수 있다.

석주명은 언어, 풍속, 문화 등에서 한반도(육지부)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 힘든 '제주다움'과 '제주적인 것'을 찾지만, 그것들 가운데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것들과 공통적인 요소들을 찾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는 제주도와 멀리 떨어진 평안도와의 공통점으로 언어, 여자들의 옷, 돗통시, 소의 거세, 밥 짓는 법(좁쌀을 백미 넣은 후 끓이면서 넣는 것) 등을 든다. 그리고 일본과의 공통점으로 바느질하는 법, 아이 업는 법, 여자가 짐을 머리에 이지 않는 것, 여자

가 내외(內外) 않는 것, 부엌에 솥을 걸되 온돌에 붙이지 않고 돌로 딴 솥덕을 만드는 것, 휘파람부는 습관 등이 있고, 몽고와의 공통점으로 모자, 의복, 신에 모피를 사용하는 것, 말을 많이 키우고 말을 잘 모는 것, 말똥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 우마견(牛馬犬)의 귀를 절단하는 것, 바람으로 선곡(選穀)하는 것, 애기구덕 등이 있다. 이는 제주도의 언어, 풍속, 문화 등에서 제주적인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 가운데는 우리의 옛것이거나 몽고나 일본 등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제주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보았을 땐 그리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즉 (외지인의 관점에서) 그는 제주인들이 자랑하는 영주십경에 대해서 "명승으로 영주십이경이라고 소개된 것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하나도 신통할 것이 없다. 다만 제주도가 남해의 외딴 섬이요 높은 산이니 그 섬 자체 즉 한라산이 재미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평하고 있고, 백록담에 대해서는 "한국 남단에 있는 한라산정의 화구호여서 북단의 백두산 천지와 더불어 옛날부터 전설로 풍경으로 선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백두산 천지와는 비교될 바가 못 되고, 수심이 상당하다고 선전되어 있지만 가뭄이 계속될 때는 고갈하는 정도이니 대수롭지 않다. 녹담만설(鹿潭晩雪, 한라산 정상부근에 늦게까지 쌓인 눈)이라고 영주십이경 혹은 제주십경에 끼워 제주도에서는 자랑할 만하다고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석주명은 자연과학도이자 외지인으로서, 그리고 제주도를 아끼는 반(半)제주인으로서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제주다움'과 제주도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였다.

5) 『제주도곤충상』

이 책은 1950년 6월에 편집완료 되었지만 한국전쟁으로 출간되지 못하고, 20년이 지난 1970년 8월 보진재에서 발간된 유고집(46판, 186쪽)이다. 이 책은 곤충학자이자 제주도 연구자인 석주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연구사, 총목록, 총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연구사'에서는 제주도 곤충과 관련된 논저 106편을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각각에 대한 간략한 해제를 덧붙이고 있다. 이를테면 1847년 제주도산으로 홍단딱정벌레 신종을 발표한 타텀(Tatum T.)의 논문에서부터 1950년 제주도산 모라빗왕버섯벌레와 노랑줄왕버섯벌레의 2종을 다룬 아라키(荒木東次)의 논문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곤충과 관련된 총 106편의 논저에서 다뤄진 내용과 체재, 특히 거기에서 발표된 제주도산 곤충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1장의 말미에 연대별 편수, 국적별 편수, 저자별 편수 등을 분석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 석주명 22편, 무라야마(村山釀造)의 13편, 조복성 8편 등 주요 곤충학자들의 성과를 제시하면서 제주도 곤충과 관련해서 단연 자신이 독보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총목록'에서는 제주도산 곤충 19목 141과 737종에 대해서 등장하는 출처, 즉 학술지, 보고서, 곤충도감 등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어 후학들에게 검증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총목록 첫머리에서 다음을 밝히고 있다.

1. 본 목록은 1950년 현재로 졸저 제주도총서 제3『제주도관계문헌집』중 <곤충부>에 수록된 문헌을 기본으로 삼아 편한 것이다. <곤충부>는 비교적 완전한 줄 알았더니 역시 빠진 것이 적지 않아서 이는 개정시에 증보코저 한다.
2. 배열은 에사키(江崎悌三)박사의 『일본곤충도감』(1932) 곤충강분류표에 준하였고, 과

(科)이하는 모두 학명의 알파벳 순으로 하였다.
3. 나비 종류만은 편자의 전문인 관계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정리하였지만 기타 부분에서는 각 저자의 의견에 맹종한 데가 많다.
4. 오카모토(岡本半次郎)박사의 대저『제주도곤충상』(1924)는 편자전문인 나비를 통해서 볼 때 의심스런 데가 많아서 전체로 믿기 어려운 저서이다. <나비부>만은 편자의 입장에서 대략 취사선택하였지만 기타 부분은 거의 그대로 포섭하였는데, 전문외인 편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타 부분의 것에도 많은 오류가 있음을 짐작하겠으니, 금후 적당한 인사가 나타나서 본편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정리하여야 하겠다. ….(1970)

이처럼 석주명은 자신의 기록에 대한 출처와 그 한계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총괄'에서는 제주도곤충 19목(目) 141과(科)의 한국명, 학명(라틴어), 각 과(科)에 대한 737종(種)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이는 이치카와(市河三喜, 1906)의 11목 34과 86종, 오카모토(岡本半次郎, 1924)의 12목 92과 527종, 키시다(岸田久吉, 1924)의 12목 26과 228종, 조복성(1963)의 16목 120과 685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자이다.(정세호, 2012) 그리고 석주명이 기록한 제주의 나비목(目)은 30과 265종으로 전체 곤충의 3분의 1에 이르며, 그 가운데 나방을 제외한 제주도의 나비는 7과 73종이다.

석주명은『제주도곤충상』에서 나비목(目) 부분만 상세할 뿐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들을 바로 잡아서『제주도 곤충상』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연구를 하는 것은 후학들의 과제이다.

6)『제주도자료집』

이 책은 잡지에 기고했던 제주도와 관련된 글을 모은 것으로 1950년 6월 탈고되었지만 1971년 9월 보진재에서 발간된 유고집(46판, 240쪽)이다. 이 책은 34편의 글과 석주명 자신의 업적 목록으로 이뤄져 있다. 그는 이 책의 첫머리에 실린 '한국의 자태'에서 제주도에는 언어, 풍속, 관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옛날 모습 내지 진정한 모습을 말해주는 자료가 많은데, 해방 이후에 육지문화가 들어오면서 제주다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바삐 귀중한 제주도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그 글을 통해 그가 왜 그토록 제주도 연구에 몰두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제주도명 지명을 포함한 동식물명"에서는 학명, 한국명, 한자명 등에서 제주, 제주도, 탐라, 영주, 한라산 등이 포함된 동식물명, 이를테면 섬오갈피나무, 영주치자, 제주방풍, 한라부추, 제주오목눈이, 제주왕나비, 제주오색딱다구리, 제주딱정벌레 등 140여개를 제시함으로써 생명종 다양성 측면에서 제주도의 생물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듣고 수집 제주도의 식물명 550여개, 동물명 330여개, 농업관련 550여개, 임업관련 90여개, 목축관련 300여개, 어업관련 110개 등의 제주방언을 수집하여 남겼다. 이를테면 제주어 식물명으로는 가마귀바농(도깨비바늘), 고냉이풀 (괭이밥), 배염고장/소입(봉선화), 개똥낭(누리장나무), 개자리(벌노랑이), 똥고리낭/독고리낭/새비낭(찔레나무), 몰모작쿨(쇠무릅), 소왕이 (엉겅퀴), 사오기(벚나무), 전기꽃(진달래), 종낭(때죽나무) 등이 있고, 동물명으로 게우리(지렁이), 게염지(개미),두메기 (풍뎅이), 더렁쇠(장수풍뎅이), 부구리(진드기), 멩마구리(맹꽁이), 장쿨애비(도마뱀), 남도래기(딱따구리) 등이 있으며, 농업관련 제주어로는 가멩이(가마니), 갈래죽(삽), ᄀᆞ래(맷돌), 놉(품), 마친다(장마진다), 숭키(푸성귀), 술노리 (쌀보리)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그는 한자의 음과 훈에서 표준어와 다른 제주어 200여개를 수집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그는 표준어 '만물 물(物)'을 제주어로 '것 물(物)', '도읍 도(都)'를 '골 도(都)', '가로 왈(曰)'을 'ᄀᆞ를 왈(曰)', '고무래 정(丁)'을 '곰배 졍(丁)', '겨레 척(戚)'을 '권당 쳑(戚)', '하여금 사(使)'를 '부릴 ᄉᆞ(使)','많을 다(多)'를 '할 다(多)' 등으로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한자어로 뒤바뀐 190여개 마을이름, 이를테면, 눈미(조천읍 와산), 뒷개(조천읍 북촌), 무주에(구좌읍 월정), 가는곶(구좌읍 세화), 옥기(남원읍 의귀), 큰개(서귀포시 대포), 도래물(서귀포시 회수), 돋드르(서귀포시 토평), 날레(대정읍 일과), 논깍(대정읍 신도리 수전미), 구석밭(대정읍 구억), 널개(한림읍 판포), 한수풀(한림), 어름비(애월읍 어음), 장밭(애월읍 장전) 등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제주어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고어(古語)와 외국어(몽고어, 일본어, 중국어, 말레이어, 만주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를 고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947년에 발행된『제주방언집』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조 고양부 삼씨고(濟州始祖 高良夫 三氏考)", "탐라고사(耽羅古史)", "토산당유래기(兎山堂由來記)" 등은 그의 인문분야에서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글들이다.

석주명은 자신의 연구업적 목록을 몇 차례 정리한 바 있지만,『제주도자료집』부록에서 그의 생전에 최종적으로(1950. 7. 1) 자신의 연구업적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제주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석주명 연구자들에게도 필수자료가 되고 있다.

4. 석주명의 제주도총서에 대한 평가

석주명은 '제주적인 것'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인물이다. 그는 제주도의 특이한 자연과 문화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루바삐 한국의 식자들이 금싸라기 같은 제주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를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행할 것을 기다리지 않고, 곤충학도였던 그가 직접 제주도의 자연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연구에 직접 뛰어들어 제주학 연구의 초석이 되는 제주도총서를 결집(結集)해냄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제주도 연구의 넓이와 깊이는 그를 제주도 박사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매일 보는 사람보다 처음 보는 사람이 더 잘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미 다른 많은 것을 보았던 사람은 그들과 비교를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그것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석주명은 나비채집을 하느라 전국을 거의 다 섭렵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고, 2년간 제주도에 상주하면서 제주도에 관련해서 보고, 듣고, 읽고, 직접 조사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기록하여 분석하고 분류였으며, 그것들을 엮어 6권의 제주도총서를 만들어냈다.

그의 제주도총서는 제주도라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출판사나 국가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석주명 자신이 혼자서 기획하고 출판하였다. 하지만 해방이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의 혼란된 시국(時局)에서 그동안 모은 제주도 자료들을 분석하고 결집해야 했다. 하지만 제주도총서는 그 자신이 총서 곳곳에서 밝히고 있듯이 훗날 보완을 염두에 둔 미완의 총서이고,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서 영원히 미완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석주명의 제주도총서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그가 남긴 자료들은 제주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내지는 제주학 연구를 위한 원재료서 가치를 지닌다. 제주도와 관련해서 그가 수집하고 기록한 자료들은 제주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인 제주4.3 직전의 것들이어서 제주도 자연과 인문사회가 파괴되기 이전 모습들이다. 그는 일찍이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알고, 그것들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연

구함으로서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둘째,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주도 연구가 이뤄졌다. 당시 일본 어용학자들이 제주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들의 연구 목적은 자원을 수탈하고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양과 질에서 일본인 학자들을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반(半)제주인의 입장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연구했다.

셋째, 석주명은 지역문화의 융성은 곧 민족문화의 융성을 가져온다고 믿고, 제주도 연구(제주학)를 국학의 연장선상에서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주도 연구는 제주도의 생물상과 문화는 일본의 그것보다 우리나라의 그것과 가깝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우리 민족의 터전과 뿌리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넷째, 자연과학의 정량적 방법을 인문사회 분야에도 적용하는 선례를 남겼다. 즉 나비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 분류, 분석 방법들을 방언연구, 인구조사, 문헌자료 분류 등에서도 응용하고 있다. 그리 본다면 석주명은 이미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학문융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문융합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석주명은 제주도 연구를 통해 통합학자가 되었다. 석주명의 학문연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제주도 연구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다르다. 석주명은 제주도 연구 이전에는 한낱 곤충학자에 불과했지만, 제주도를 입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자연, 인문, 사회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학자로 성장했다.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자연과 인문사회 분야의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기에 한계도 있다. 특히 그는 제주도로 보자면 이방인이었고, 곤충학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비전공자였다. 특정 분야에서는 탁월한 전문가일지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비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석주명의 업적에는 공과(功過)가 공존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제주인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참신성과 과감성을 가졌지만, 그만큼 잘못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는 제주도에 오기 전에 이미 나비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였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합한 권위에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약점도 지닌다. 즉 나비연구의 대가였기에, 그가 범한 잘못들마저도 대중들은 사실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생겨난다. 그의 제주도 연구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가 범한 오류에 비해 그가 이룬 성과가 워낙 크다. 따라서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각 분야에서의 전공자들이 몫이다.

강영봉(2008)은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에 대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 관심 또는 호기심이 전공자에게 자극을 주고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비전공자가 전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공자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외연을 넓힐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실로 믿거나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어서 오해를 사기도 한다. 그러나 전공자의 거르개를 거쳐 정제된 자료를 내놓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공과를 제주학의 다른 분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석주명은 평양에서 태어나 개성에서 중등교사로 있으면서 나비연구로 이름을 떨쳤고, 말년에는 제주도와 서울에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전문대학(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 출신임에도 각고의 노력과 성실성으로 학벌을 뛰어넘어 자신의 전공분야인 ‘나비학’에서 세계적 반열에 오른 학자이다. 그는 남북한 동포들이 함께 존경할 수 있고, 자연과학도와 인문사회학도가 동시에 흠모할 수 있는 보기 드문 학자이다. 그리고 제주도와 관련된 그의 논저와 자료들은 제주학뿐만 아니라 한국학의 귀중한 자산이다.

참고문헌

■ 석주명 논저

석주명(1937a), 「濟州島産蝶類採集記」, Zephyrus vol.7[2/3], 日本蝶類同好會, 1937.; 150-174. 윤용택 외,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2012) 385~419쪽에 「제주도산 접류채집기」로 번역 수록.

석주명(1937b), 「濟州島の思ひ出」, 『지리학연구』 14(5): 27-29 ;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375-378쪽에 재수록, 『제주도자료집』(1971) 190-193쪽에 「제주도의 회상」으로 번역 수록.

석주명(1945), 「濟州島의 女多現象」, 『조광』 11(2): 39-41; 『석주명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1992) 149-156쪽에 재수록.

석주명(1946a), 「兎山堂由來記」, 『향토』 9월호: 15-18; 『제주도자료집』(1971) 177-181쪽및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173-178쪽에 재수록.

석주명(1946b), 「濟州島地名을 包含한 動植物名」, 『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부연구보고』 1(1): 1-4; 『제주도자료집』(1971) 11-20쪽에 증보 재수록.

석주명(1947a),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석주명(1947b), 「濟州島의 蝶類」, 『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부연구보고』 2(2); 『석주명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1992) 55-60쪽에 재수록.

석주명(1947c), 「耽羅古史」, 『국학』 3: 25-28, 36; 『제주도자료집』 (1971) 172-176쪽 및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167-171쪽에 재수록.

석주명(1948a), 「韓國의 姿態」, <제주신보> 1948. 2. 6.; 『제주도자료집』(1971) 7-8쪽에 재수록.

석주명(1948b), 「濟州島의 象皮病」, 『조선의보』 2(1): 38-39; 『제주도자료집』(1971) 213-214쪽에 재수록.

석주명(1948c), 「國學과 生物學」, 김정환 편 『현대문화독본』(1947년에 서울신문 학예란에 투고했던 과학수필 중 5편을 재편한 것); 『제주도자료집』, 보진재, 1971, 190~193쪽에 재수록.

석주명(1949a), 『濟州島의 生命調査書-濟州島 人口論-』, 서울신문사.

석주명(1949b), 『濟州島文獻集』, 서울신문사.

석주명(1949c), 「濟州島方言과 比島語」, 『조선교육』 3(3): 17-19. 『제주도자료집』 (1971) 161-164쪽 및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157-161쪽에 재수록.

석주명(1949d), 「'男女數의 支配線'의 位置, 附 濟州道統計에 대하여」 『대한민국통계월보』 5: 1-3; 『제주도자료집』(1971) 209-212쪽에 재수록.

석주명(1949e),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1년간의 제주도」, 『학풍』 2(1): 100-101;『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179-181쪽에 재수록.

석주명(1949f),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둘째해의 제주도」, 『학풍』 2(2): 112-113;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183-186쪽에 재수록.

석주명(1949g),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셋째해의 제주도」, 『학풍』 2(3): 116-117쪽;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187-190쪽에 재수록.

석주명(1949h), 「敎師와 學者」, 『새교육』 5; 『석주명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1992) 105-108쪽에 재수록.

석주명(1950a), 「濟州島方言과 馬來語」, 『語文』 2: 1-4;『제주도자료집』(1971) 157-160쪽 및 『석주명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 163-166쪽에 재수록.

석주명(1950b),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넷째해의 제주도」, 『제주신보』 부록 제1호(1950. 4. 5.), 4쪽.
석주명(1950c), 「濟州始祖 高·良·夫 三氏考」, 『주간서울』 87: 13;『제주도자료집』 (1971) 168-171쪽에 증보하여 재수록.
석주명(1968), 『濟州島隨筆 -濟州의 自然과 人文-』, 보진재.
석주명(1970), 『濟州島昆蟲相』, 보진재.
석주명(1971), 『濟州島資料集』, 보진재.
석주명(1972), 『韓國産 蝶類의 硏究』, 보진재.
석주명(1973),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석주명(1992), 『석주명의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 신양사.
석주명(2008a), 『濟州島方言集』, 서귀포문화원.
석주명(2008b), 『濟州島의 生命調査書』, 서귀포문화원.
석주명(2008c), 『濟州島關係文獻集』, 서귀포문화원.
석주명(2008d), 『濟州島隨筆』, 서귀포문화원.
석주명(2008e), 『濟州島昆蟲相』, 서귀포문화원.
석주명(2008f), 『濟州島資料集』, 서귀포문화원.

■ 석주명 관련 논저

강영봉(2002), 「제주어와 석주명」, 『탐라문화』 2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강영봉(2008), 「석주명의 제주어와 몽골어」,<나비, 그리고 아름다운 비행> 석주명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석주명선생기념사업회.
강영봉(2012),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012, 187-197쪽.
김치완(2012), 「석주명의 제주도자료에 비친 제주문화」『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012, 248~255쪽.
문만용(2012), 「나비분류학에서 인문학까지」,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윤용택(2011),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의의」, 『탐라문화』 39,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윤용택(2012),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윤용택(2017), 「석주명의 학문이념에 대한 연구」, 『철학사상문화』 25,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이병철(1985), 『석주명 평전』, 동천사.
이병철(2011), 『석주명 평전』(복간), 그물코.
이병철(2012), 「'석주명 제대로 알기' 여정을 돌아보다」,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전경수(2001), 「석주명의 학문세계: 나비학과 에스페란토, 그리고 제주학」, 『민속학연구』 8, 국립민속박물관.
정세호(2012), 「석주명의 제주도 곤충 연구에 대한 의의」,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012.
제주4.3희생자유족회(2015), 『제주4.3희생자유족회 27년사』, 도서출판 각.
최낙진(2012), 「석주명의 <제주도총서>의 출판학적 의미」,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012.
홍순만(2000), 「제주도학 연구와 석주명 선생의 공헌」, <제주학 연구의 선구자 고 석주명 선생 재조명> 2000제주전통문화 학술세미나 자료집, 제주전통문화연구소.